

Morning Meeting Brief

THE GLOBAL / Global Daishin View

[Global Daishin View] 2026 년 7 월 4 주차

- 불안정한 증시 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베어마켓 진입. 지금 가장 필요한 전략은 신중함
- 유나이티드헬스그룹, 2분기 실적 호조, 프로로지스, 물류 회복세에 힘입어 성장 기대
- 이번 주 해외 투자 포커스: [신흥국전략] Global X China Robotics and AI ETF(2807.HK), [미국주식] 유나이티드헬스클럽, [글로벌리츠] 프로로지스

글로벌전략 문남중, AI Engineer 조재운, 글로벌리츠 김다은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대외 악재 누적에 120 일 이평선 이탈, 6,500 선 지지력 테스트

- 중국 문샷 충격에 AI 주도권 우려 부각, 반도체 투자심리 위축
- 중동 확산 우려에 국제 유가 급등, 레버리지 쏠림 속 매도 사이드카 발동
- 방향성을 잃은 수급 주체, 업종 전반 매도세 확산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LIG D&A(079550): 2Q26 Preview, 컨센서스 상회 전망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990,000원 하향조정
- 2Q26 컨센서스 대비 매출, 영업이익 상회 전망
- 26년 상고하저의 실적, 27년 고성장 전망

최정환. jeonghwan@daishin.com

[Industry Report] AI 인터커넥트 대전환

- AI 인터커넥트로 옮겨가는 병목의 지점. 스케일업 광시장에 주목할 시점
- 표준화되지 않은 스케일업 광 시장. Ayarlabs, Lightmatter, Celestial AI 격돌
- 국내 Top - Pick 성호전자, 관심종목. RF머트리얼즈, 대한광통신 제시

박장욱. Jangwook.Park@daishin.com

[Issue Comment] 삼성바이오로직스: 항체를 넘어 펩타이드로

- 2.7조원 규모의 폴리펩타이드 인수로 펩타이드 CDMO 진출
- 차세대 모달리티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
- 중장기 전략에는 긍정적, 거래 종결 및 통합 과정 확인 필요

홍가혜. kahye0.hong@daishin.com

THE GLOBAL

Global Daishin View

글로벌전략 문남중
AI Engineer 조재운
글로벌리츠 김다은

2026년 7월 4주차

- 불안정한 증시 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베어마켓 진입,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한 때
- 유나이티드헬스그룹, 2분기 실적 호조, 프로로지스, 물류 회복세에 힘입어 성장 기대
- 주식 포커스: Global X China Robotics and AI ETF(2807.HK), 유나이티드헬스그룹, 프로로지스

[글로벌전략] 가시밭길 속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베어마켓 진입, 지금 가장 필요한 전략은 신중함

7.17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22일 고점 이후 -20.3% 하락해, 공식적으로 베어마켓에 진입. 반도체주 하락의 중심에는 하이퍼스케일러의 대규모 AI 투자가 실제 수익 창출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본지출 투자 감소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23일 예정된 알파벳 실적은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의문을 낮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2/4분기 실적을 통해 대규모 투자계획을 유지하고 구글 클라우드의 높은 성장률과 AI 서비스 수요가 확인된다면 AI 투자 사이클 불안 심리는 다소 진정될 것

[신중국전략] Global X China Robotics and AI ETF(2807.HK):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 AI' , 6개월내 홍콩 증시 상장 추진

문샷 AI는 연초부터 홍콩 상장을 검토해왔으며,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 골드만 삭스와 상장 주관 관련 협의를 진행. 문샷 AI는 연환산매출(ARR)이 6월 3억 달러에 이르자 상장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판단. 문샷 AI는 7.17일 공개한 신모델 '키미(Kimi) K3'가 앤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5'와 오픈AI의 'GPT-5.6'을 제외한 모든 경쟁 모델을 종합 성능에서 앞선다고 자체 평가. 문샷 AI가 현재 진행 중인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가치는 3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될 전망

[미국주식]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H): Q2 2026 조정 EPS \$6.38 — 컨센서스 30% 상회 · FY26 가이던스 3차 상향

EPS(주당순이익) \$6.38로 시장 예상 30% 상회, 실적 회복세 뚜렷. 올해 이익 전망 세 번째 상향(주당 \$19.5~20.0), 개선 자신감 재확인. 주가는 예상이익의 21배로 평소(19배)보다 비싼 수준, 추가 상승은 이익 전망 상향이 관건. 하반기 보험금 지출 부담(비용률 ~91%)과 가입자 감소 진정 여부가 핵심

[글로벌리츠] 프로로지스(PLD): 실적 서프라이즈, 물류 업황 회복과 데이터센터 성장 지속 확인

26.2/4분기 매출 24.3억달러(+11.0% YoY), 주당 FFO 1.63달러(+11.6% YoY) 컨센 상회. 미국 순흡수는 6,600만sf로 4년만 최고치 기록, 공실률 7.2%로 하락하며 물류 회복세 지속 → 2026년 공급부족으로 임대료 상승국면 전환 예정. 데이터센터 전력 파이프라인은 5.8GW로 2년간 두배 증가, 이중 85%가 2030년까지 착공 예정. 12MF P/FFO 24배로 밸류에이션 부담 존재하나 물류업황의 본격적인 개선과 데이터센터 성장 모멘텀 우수. 조정 시 매수전략 권고

대외 악재 누적에 120일 이평선 이탈, 6,500선 지지력 테스트

- 중국 문샷 충격에 AI 주도권 우려 부각, 반도체 투자심리 위축
- 중동 확전 우려에 국제 유가 급등, 레버리지 쏠림 속 매도 사이드카 발동
- 방향성을 잃은 수급 주체, 업종 전반 매도세 확산

중국 문샷 충격에 AI 주도권 우려 부각, 반도체 투자심리 위축

중국 문샷의 AI 모델 'Kimi K3'가 미국 최상위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면서,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대규모 자본지출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 확대 이번 충격은 과거 딥시크 사태처럼 저비용으로 고성능 모델을 구현했다는 비용 측면 충격이라기보다, 중국이 미국의 최상위 모델을 넘어 AI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술 경쟁력의 충격. 중국 프론티어 모델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될 경우 중국 메모리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 높음. 또한 경쟁 우위가 약화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부각

다만 중국 AI 모델도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고, 하이퍼스케일러와 그외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메모리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 그럼에도 국내 반도체 업종은 휴장 기간 누적된 반도체 이슈에 문샷의 홍콩 증시 IPO 추진과 카옥시아의 미국 특허소송 패소 등을 반영하며 투자심리가 위축

반도체: 삼성전자(-4.3%), SK하이닉스(-4.2%), 한미반도체(-8.5%)

중동 확전 우려에 국제 유가 급등, 레버리지 쏠림 속 매도 사이드카 발동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점차 격화. 미군은 9일 연속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군 사상자 발생 이후 공격 강도도 한층 강화. 이란도 미군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2척이 폭발했다는 소식

이에 양국 간 확전 및 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 부각. 현재 WTI 선물은 82달러, 브렌트유 선물은 88달러 수준으로 레벨업되며 위험자산 선호 후퇴

한편, 16일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수급 쏠림은 지속. 보완대책 발표 당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의 거래대금은 약 12조원이었으며, 금일 거래대금도 약 12조원을 기록. 여전히 변동성 장세로 장 중 낙폭 확대되며 올해 20번째 매도 사이드카 발동(매수 사이드카는 18번)

방향성을 잃은 수급 주체, 업종 전반 매도세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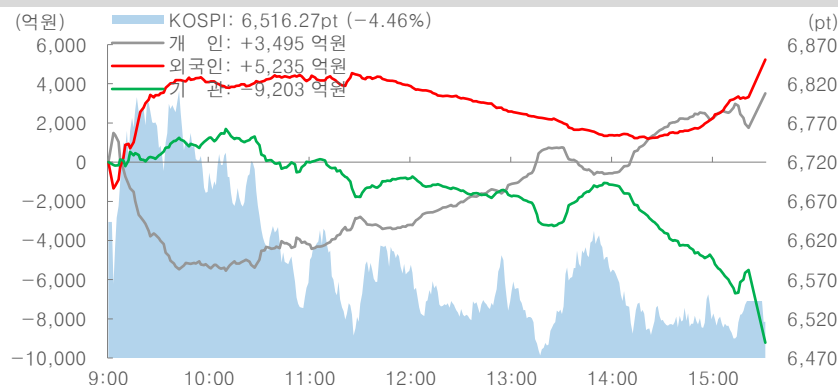
수급 주체들의 방향성 부재 속 투자심리 위축으로 업종 전반 악세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7.2%),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7.2%)

전력기기: HD현대일렉트릭(-5.7%), 효성중공업(-9.0%), LS ELECTRIC(-5.6%)

조선: HD현대중공업(-7.3%), 삼성중공업(-6.1%), 한화엔진(-9.6%)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LIG D&A
(079550)

최정환 CFA

jeonghwan.choi@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990,000

하향

현재주가

749,000

(26.07.16)

방위산업

2Q26 Preview:
컨센서스 상회 전망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990,000원 하향조정
- 2Q26 컨센서스 대비 매출, 영업이익 상회 전망
- 26년 상고하저의 실적, 27년 고성장 전망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990,000원 하향조정

27년 연결 기준 지배주주순이익에 Target PER 31.3x 적용해 목표주가 산출. 목표주가 하향의 경우 27년 실적 추정치 하향에 따른 것으로 동사 미래 성장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반영. 중동 국가의 러시아 S-400 도입이 동사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기타 수출 매출에 대한 부분 자평가 되어있다고 판단, CAPA 증설 및 Rheinmetall과의 JV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매출 증대 및 동사 방공체계의 유럽 시장 진출을 기대하며 업종 내 차선후주 유지

2Q26 컨센서스 대비 매출, 영업이익 상회 전망

2Q26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3,400억원(+41.8% YoY), 영업이익 1,220억원(+58.2% YoY, OPM 9.1%)으로 컨센서스인 매출액 1조 1,700억원 및 영업이익 1,080억원 상회 전망. 2Q26 수출 비중은 24.6%로 1Q26 34.7% 대비 감소,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 또한 매출 믹스 악화에 따라 14.7%에서 9.1%로 감소 전망. 이는 1Q26 발생했던 중동 천공2 부속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타 수출 매출 또한 감소하기 때문. 다만 환율 효과로 25년 대비 수출 마진을 상승을 전망

26년 상고하저의 실적, 27년 고성장 전망

2H26 UAE, 사우디 천공2 매출 증가에 따라 2H26 내수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은 3Q26 31.4%, 4Q26 26.8%를 전망. 영업이익률의 경우 4Q26 5.3%로 연내 가장 낮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할 것이라 추정, 이는 내수 개발 신규 수주에 따른 총당금 설정 및 자체 개발비 투자 증가에 따른 것임. 자체개발은 위성 분야에 집중되며 향후 동사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것. 27년부터는 UAE, 사우디 그리고 2H27 이라크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며 연간 매출 7.1조원(+33.7% YoY) 고성장 전망, 수출 비중 또한 43.2%로 26년 29.0% 대비 대폭 상승하며 영업이익률 또한 26년 9.5% → 27년 10.4% 상승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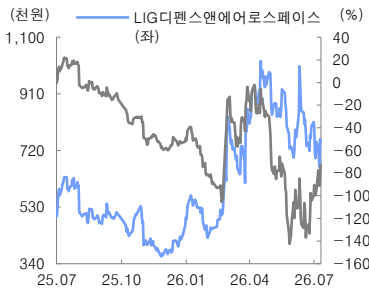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3,276	4,307	5,328	7,121	8,008
영업이익	230	321	507	738	927
세전순이익	210	278	509	774	941
총당기순이익	217	237	408	658	799
지배지분순이익	222	253	429	699	850
EPS	10,106	11,516	19,510	31,786	38,628
PER	18	28	38	24	19
BPS	56,248	67,077	81,813	105,483	134,113
PBR	13	11	9	7	6
ROE	17.5	16.1	22.6	28.3	27.1

자료: LIG D&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6,820.60
시가총액	16,47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5%
자본금(보통주)	11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020,000원 / 364,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660억원
외국인지분율	25.73%
주요주주	엘이이지 외 8인 38.21% 국민연금공단 10.3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5.2	-15.2	40.0	22.6
상대수익률	-4.4	-22.6	-0.6	-42.7



스몰캡 (IT)



박장욱 Jangwook.Park@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신규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성호전자	N.R	N.R
RF머트리얼즈	N.R	N.R
대한광통신	N.R	N.R

*

AI 인터커넥트 대전환

- AI 인터커넥트로 옮겨가는 병목의 지점. 스케일업 광시장에 주목할 시점
- 표준화되지 않은 스케일업 광 시장. Ayarlabs, Lightmatter, Celestial AI 격돌
- 국내 Top - Pick 성호전자, 관심종목: RF머트리얼즈, 대한광통신 제시

옮겨가는 병목의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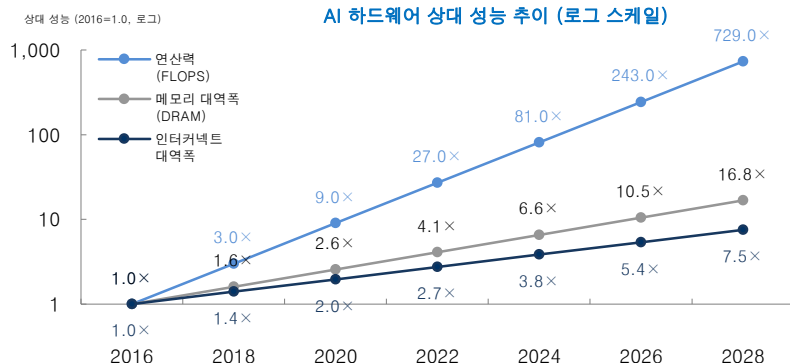
AI 인프라의 병목은 연산 성능에서 HBM을 비롯한 메모리로, 다시 칩과 칩 사이의 인터커넥트로 이동하고 있다. 모델의 크기가 단일 GPU의 연산 능력과 메모리 용량을 넘어선데다, Agent AI와 피지컬 AI가 더 긴 컨텍스트와 낮은 응답 지연을 요구하면서 여러 GPU를 하나의 거대한 연산 장치처럼 연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Tensor Parallelism과 MoE 기반 Expert Parallelism은 연산 과정에서 GPU 간 결과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므로, AI 클러스터의 성능은 개별 GPU보다 이를 연결하는 대역폭과 지연시간에 점차 좌우될 전망이다.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스케일업 광 시장

스케일업 광 I/O 시장은 아직 기술과 표준이 확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다. 프로토콜에서는 NVIDIA의 NVLink NVFusion과 AMD, Broadcom, Google, Meta, Microsoft 등이 참여한 UALink가 경쟁하고 있다. 물리계층에서는 XPU 옆에 광 칩셋을 배치하는 Ayar Labs, 칩 아래에 광 인터포저를 적용하는 Lightmatter, 연산 칩과 메모리를 하나의 광 패브릭으로 연결하는 Celestial AI (Marvell) 방식이 대표적이다. Ayarlabs는 기존 패키지 구조와의 호환성이 높아 초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고, Lightmatter는 Beachfront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해결한다. Celestial AI는 메모리 풀링까지 광으로 확장해 가장 큰 잠재시장과 동시에 가장 높은 기술 난이도를 가진 기술이다.

Top Pick: 성호전자, 관심종목: RF머트리얼즈, 대한광통신

국내에서는 액티브 얼라인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성호전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성호전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케일업 시장에서 수혜가 기대되나, 최근 광시장 조정에도 동반하여 큰 폭 조정이 발생하였다. 펀더멘탈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RF머트리얼즈의 경우, 루멘텀형 스케일러크로스 매출이 견조한 가운데, 증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 또, 대한광통신도 수혜가 예상된다. 북미 하이퍼스케일러형 매출, 인캡 인수 효과뿐 아니라 중국내 광섬유 가격 상승 수혜에 따른 턴어라운드 기대된다. 다만, 대한광통신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주의가 필요하다. .



삼성바이오 로직스 (207940)

홍가혜

kahye0.hong@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00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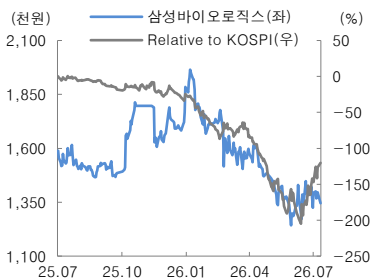
(26.07.20)

1,345,000

제약업종

KOSPI	6,516.27
시가총액	62,26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94%
자본금(보통주)	116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965,000원 / 996,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888억원
외국인지분율	12.81%
주요주주	삼성물산 외 5 인 74.30% 국민연금공단 6.6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1	-16.2	-29.9	28.0
상대수익률	36.0	-20.0	-47.5	-37.4



항체를 넘어 펩타이드로

- 2.7조원 규모의 폴리펩타이드 인수로 펩타이드 CDMO 진출
- 차세대 모달리티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
- 중장기 전략에는 긍정적, 거래 종결 및 통합 과정 확인 필요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000,000원 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20 공시를 통해 약 2.7조원 규모의 스위스 펩타이드 CDMO 업체 폴리펩타이드 그룹(SIX: PPGN) 인수를 발표함.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항체 중심 CDMO에서 펩타이드로 모달리티를 확대하고, 미국·유럽·인도 생산거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이벤트로 판단함. 특히 GLP-1 기반 비만치료제 시장 성장으로 수요가 확대 되는 펩타이드 시장에 M&A를 통해 즉시 진입해 자체 증설 대비 시장 진입 기간을 단축했다는 점도 긍정적임. 다만, 거래 종결 이후 통합 시너지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목표주가에는 미반영함.

폴리펩타이드 그룹은 글로벌 Top-tier 펩타이드 CDMO

폴리펩타이드 그룹은 약 70년 업력의 펩타이드 전문 CDMO로, 미국·유럽·인도 등 5개국에서 6개의 cGMP 생산거점을 운영 중임. 1,000개 이상의 펩타이드 의약품 생산 경험과 글로벌 임상3상 펩타이드 파이프라인의 약 1/3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상업화 전환에 따른 생산 물량 증가가 기대됨. '25년 매출은 3.89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대사업 매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 중임('21년 22%→'25년 57%). '26년 매출 성장률 20~25%, EBITDA 마진 mid-to-high teens를 가이드선으로 제시함.

전략적 의미: 모달리티+생산거점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다변화

이번 인수의 핵심은 펩타이드 모달리티와 글로벌 생산거점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것임. GLP-1 중심의 고성장 시장에 즉시 진입하는 동시에 기존 생산시설과 고객 기반을 승계해 인수 직후 매출 기여가 가능하며, 미국·유럽·인도 거점을 기반으로 공급망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양사가 보유한 글로벌 고객 기반을 활용한 교차 수주와 운영 효율화를 통한 중장기 수익성 개선도 기대됨.

중장기 전략에는 긍정적, 거래 종결 및 통합 과정 확인 필요

이번 인수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며, 공개매수는 9월 개시 이후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임. 최대주주의 공개매수 응모 확약으로 거래 성사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인수지금은 보유 현금과 영업현금흐름으로 상당 부분 충당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6공장 및 송도 제3캠퍼스 투자 등 병행되는 대규모 CAPEX를 감안하면 추가 차입 가능성은 존재하며, 향후 거래 종결과 자금조달 방식은 확인이 필요함.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